

# “서울대 100%지역균형으로 선발해야”

지역과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대의 입시전형을 100%로 지역균형선발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격정없는세상(사격세)은 오는 2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통합입시 방안 토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국민통합입시 방안은 서울대가

## 사격세 “교육 격차 완화위해” 제안

### 오늘 오후 국민통합입시 방안 토론회

실시하고 있는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100%로 확대하고 나아가 주요 사립대까지 이 제도를 확대하자는 것으로, 이화여대 조기수 교수가 제안한 방안이다.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은 각 학교 별로 추천을 받은 학생이 지원하는 전형으로 2019학년도 기준 2453명 정원에 741명을 지역균형 선발전형으로 뽑았다.

사격세는 국민통합입시 방안의 장점에 대해 “비슷한 지역과 계층의 학생 간에만 비교와 경쟁이 이뤄져 부모의 재력과 능력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격세는 21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미래형 새 대입제도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토론 주제로는 논술형 국가시험, 대학입학보장제 등이다.



## 한강대교 남단 ‘노들섬~노랑진’ 보행교 생긴다...1917년 이후 104년만에 ‘부활’

뉴욕 브루클린브리지처럼...1층 차도·2층 보행로

서울시가 2021년 한강대교 남단에 기존 교량을 이용해 노들섬과 노랑진을 잇는 보행자 전용교를 다시 개통한다. 1917년 ‘한강 인도교’가 최초 개통된 이후 약 104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일 ‘한강대교 보행교 기본구상안’을 발표했다. 보행 중심이라는 한강대교의 역사성을 복원하고 차와 사람이 공존하는 새로운 백년다리의 전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골자다.

시는 이를 위해 5월 중 국제현상 설계공모를 추진해 창의적인 디자인을 받을 계획이다. 또 총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 연내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6월 시민에게 개방한다.

시에 따르면 한강대교는 한국전쟁으로 폭파된 이후인 1958년 시멘트와 철근을 이용한 교량으로 준공됐다. 서울의 인구와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1981년 지금의 쌍둥이 교량으로 탈바꿈했다. 총 연장은 840m다. 교량 중앙의 노들섬을 기준으로 노랑진 방향(남단) 381m는 아치형으로 돼 있다.

시는 한강대교 남단(노들섬~노랑진) 아치 구조와 기존 교각을 이용, 기존 차도는 유지하면서 쌍둥이 다리 사이 공간을 활용해 폭 10.5m, 길이 500m 보행교를 새롭게 놓는다.

뉴욕의 상징물이자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인 ‘브루클린브리지(Brooklyn Bridge)’처럼 1층은 차도, 2층은 보행로로 운영된다. 보행자 편의를 극대화하고 도로 시설물 투 사용하지 않는 ‘날’에 자원순환사 회연대 등 시민(환경)단체 등과 함께 광화문광장, 서울역 등에서 ‘회용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 홍보행 사’를 연다.

시는 전통시장 광화문장터 등에서 ‘정바구니 사용 권장 홍보활동’을 펼친다.

로를 건너기 위해 막혔던 노들섬 동-서를 연결하는 보행교와 연결 된다.

올림픽대교 하부 수변보행길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수직으로 직접 연결된다. 이렇게 되면 노들섬에서 한강대교 보행교를 지나 노랑진 일대까지 한 번에 보행길이 이어진다.

시는 노랑진 고가차도 일부 구간을 존치시켜 한강대교 보행교와 연결하고 노들역, 한강공원 용봉정 근린공원 등 노랑진 일대 주변으로 편하게 걸어들 수 있도록 육교 형태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한강대교 보행교 설치하는 자연과 음악 중심 복합문화공간으로 9월말 개장을 앞둔 노들섬의 보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서 시를 설명했다.

보행교에는 ▲한강과 주변 경관을 360도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전망데크)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광장(백년마당) ▲미니 잔디밭 등 녹색 휴식공간(그린데크) 등이 조성된다. 단순히 지나가는 공간이 아닌 시드니의 ‘하버브리지’처럼 보행교 자체가 즐길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아치구조가 없는 노들섬~용산 구간(한강대교 북단)은 별도의 연결하는 방안이 대해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2단계로 추진된다. 시는 다른 대교의 보행로 설치 추진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들섬으로 가는 길은 매년, 소음, 추위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한 길이다. 노랑진 일대는 한강과 보행이 단절돼 있다”며 “새롭게 만들어진 다리는 백년다리라고 정했다. 100년전 사람이 주인이었던 그 길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한강대교 교각을 이용해 기존 차도와 새로운 보행길이 공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바이흐로 봄’...아름다운 서울 꽃길 160선 소개합니다

개나리·진달래 30일~내달5일 만개...벚꽃은 다음달 10일경 만개 예상



### 서울119 작년 이승 현황 50대·무직·7월 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9구급대가 총 55만 9519건 출동해 35만 3574명의 환자를 이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2018년도 119구급대 활동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대가 일평균 1533건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60초마다 1건씩 출동한 셈이다. 환자 이송은 일일 평균 969명으로 89초마다 1명씩 이송했다.

전년대비 출동건수는 2.6% 증가했고 이송인원은 3.1% 늘었다. 지난해 119구급대 출동 건수는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 구급출동은 52만6858건, 이송환자는 34만737명이었다. 지난해 구급대원은 총 90만8333건의 응급처치도 시행했다.

출동 현황별 상위 분포를 모아보면 ▲연령별 50대 ▲직업별 무직 ▲오전 8시~10시 ▲12월 ▲가정 ▲급?만성질환의 응급이송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51~60세가 5만6690건(16%)으로 구급수요가 가장 많았다. 60세부터 100세 이상까지는 전년 대비 8.7% 증가해 전체 구급대 출동의 43%를 차지했다.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년층의 구급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14만6420명(4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원 9만1322명(26.4%) ▲주부 4만2256명(11.9%) ▲기타 4만3634명(12.3%)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춘선 숲길 봄꽃 만개 모습.

바이흐로 봄이 찾아왔다. 이에 서울시는 벚꽃, 개나리, 진달래 등을 볼 수 있는 ‘서울의 아름다운 봄 꽃길 160선’을 소개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시가 선정한 봄 꽃길 160선은 서울의 크고 작은 도심 공원부터 가로변, 하천변, 골목길 등 우리주변의 가까운 장소까지 총망라했다. 총 길이만 무려 241.6km다.

선정된 꽃 길은 ▲공원 내 꽃길 49개소(경춘선 숲길, 서울로 7017, 북서울꿈의숲, 중랑 캠핑숲, 남산, 서울대공원 등) ▲가로변 꽃길 68개소(영등포구 여의동·서로, 광진구 위귀힐길, 금천구 벚꽃로 등) ▲하천변 꽃길 36개소(한강, 중랑천, 성북천, 안양천, 청계천, 양재천 등) ▲녹지대 8개소(강북 우이천변 녹지대, 양재대로 녹지대 등)로 총

160개소다. 시는 장소 성격에 따라 ‘봄나들이하기 좋은 봄 꽃길’, ‘산책과 운동하기 좋은 봄 꽃길’, ‘색다른 꽃을 감상할 수 있는 봄 꽃길’,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봄 꽃길’ 등 5개 테마로 분류했다.

선정된 160곳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story/springflowerway/pc.html>)와 웹서비스 ‘스마트서울맵(서울 IN 지도)’,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park/>)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체험프로그램이나 공연정보 해당 자치구에서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서울의 아름다운 봄 꽃길을 주제로 한 ‘봄 꽃길 사진 공모전’을 다음달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 시내 봄 꽃길을 찍은 사진으로 참여 가능하다.

뉴시스

## 1회용 아이스팩 남용...서울시, 사용실태 조사

### 시민실천 아이디어 공모전 등

서울시가 음식물 신선도 유지 등에 쓰이는 1회용 ‘아이스 팩’을 줄이기 위한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민·관협력기구인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와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안하기’ 시민 실천운동을 함께 전개 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와 본부는 아이스 팩의 배출량, 수거경로, 재활용실태 등을 파악한

다. 음식물 신선도 유지 등에 쓰이는 아이스 팩은 현재 얼마나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 어떤 경로로 수거돼 재활용되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아이스 팩 사용 실태를 파악해 수거방안과 재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올해 1회용 플라스틱 사용억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1회용품 사용실태 점검, 자율협약체결

단체 현장점검 등 시민 체감형 실천 사업을 추진한다.

본부는 자율협약을 체결한 단체와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 공공부문·민간위탁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7월31일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사용하지 않는 날’에 자원순환사 회연대 등 시민(환경)단체 등과 함께 광화문광장, 서울역 등에서 ‘회용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 홍보행 사’를 연다.

시는 전통시장 광화문장터 등에서 ‘정바구니 사용 권장 홍보활동’을 펼친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